

환율 안정화 방안 및 금리인상 신중 건의

2007. 7. 9

1. 수출동향과 평가
2. 환율 안정화 방안
3. 금리인상 논의에 대한 입장

한 국 무 역 협 회

I. 수출동향과 평가

1. 상반기 수출 동향

-- 금년 상반기 수출은 **14.7%** 증가하여 호조세 기록

o 품목별로는 반도체(12.3%), 자동차(12.0%) 등이 호조. 지역별로는 대중(19.5%), 대아세안(29.7%) 등이 호조

- 대일(0.8%), 대미(13.4%) 등 선진시장은 상대적 부진

< 상반기 수출입 동향 > (억달러, %)

	2006년			2007년	
	6월	상반기	연간	6월	상반기
수출	279 (17.9)	1,554 (13.8)	3,255 (14.4)	324 (15.9)	1,781 (14.7)
수입	260 (22.2)	1,493 (20.1)	3,094 (18.4)	284 (9.3)	1,698 (13.7)
수지	19 (-5)	61 (-61)	161 (-71)	39 (20)	84 (23)

-- 對日무역수지 적자 심화

o 원/엔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중 對日수출 증가율은 0.8%에 그친 반면, 수입은 10.4% 증가

- 이에따라 대일무역적자는 전년동기보다 18.1억달러 증가한 143.9억달러로 이 추세대로라면 금년도 대일무역적자는 사상최고치인 300억달러에 달할 전망

【 '07. 상반기 중 對日무역현황 】

(억달러, %)

수출	수입	무역수지
121.9(0.8)	265.8(10.4)	(-) 1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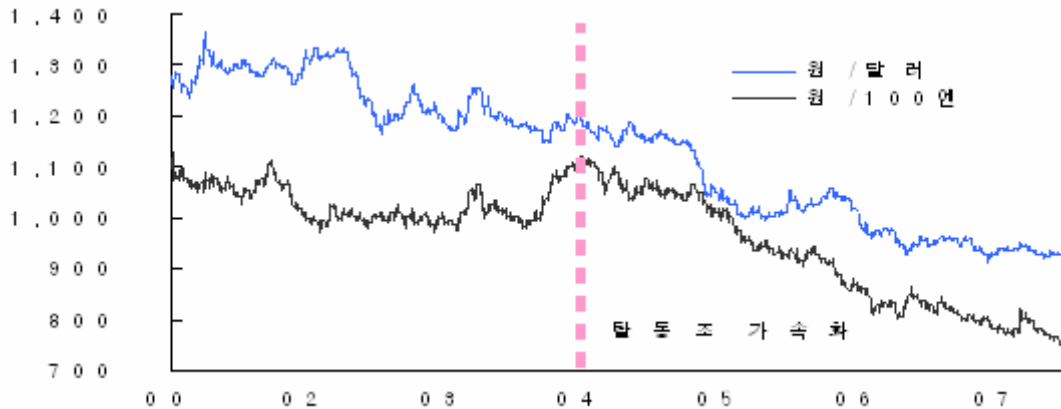
()는 증가율

2. 수출 평가

--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으로 채산성은 지속 악화

- o 2002년초 ~ 2007년 7월 5일까지 원/달러 환율은 29.8% 하락
- o 특히 원/엔 환율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33.0%까지 하락

< 2000년 이후 원/달러, 원/엔 환율 동향 >



< 주요국 환율변동 추이 > (기간말 환율, %)

	환율수준(기간말 기준)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7.5	01~07. 7.5
엔화	9.8	9.7	3.6	-14.2	-0.9	-3.2	6.6
유로	18.5	19.8	8.7	-13.2	11.1	3.6	54.0
원화	9.7	-0.5	13.2	2.3	8.2	0.8	29.8

주 : (+)는 해당통화 하락, (-)는 해당통화 상승
한국은행

자료 :

- o 이에 따라 수출채산성은 2004년 4/4분기부터 연속 9분기 악화

< 수출채산성 변동 추이 > (전년동기대비, %)

	2004			2005				2006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채산성(ab)	1.3	3.4	-1.2	-6.9	-9.4	-8.5	-6.3	-5.5	-3.2	-1.8	-4.0
수출가격(a, ₩)	6.1	10.9	5.1	-4.7	-7.4	-7.5	-6.1	-4.3	-0.7	0.0	-2.3
수출생산비용(b)	4.7	7.3	6.4	2.4	2.2	1.1	0.2	1.4	2.6	1.8	1.8

○ 수출 상장기업 중 잠재적 부실기업 지속 확대

－ 2006년 수출상장기업 160개사 중 매출액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은 기업(잠재적 부실기업)이 전체의 39.4%(63개사) (「국제무역연구원 자체분석」, 07.6월)

○ 2005~2006년 수출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내수기업에 비하여 12.1%p 높은 반면 영업이익률은 2.6%p 낮음

-- 수출기업들은 채산성 악화 극복을 위해 수출선 전환, 수출단가 인상 등으로 대응

○ 선진국 중심에서 개도국 중심으로 수출선 전환

－ 대개도국 수출은 19.9% 증가한데 비해 대선진국 수출은 7.0% 증가에 그쳤으며, 수출 기여율 상위 10개국 중 선진국은 미국 등 4개국, 개도국은 중국 등 6개국

○ 수출단가 인상

< 수출단가 상승률 > (%)

	2006	2007. 1월	2월	3월	4월
전 체	-0.3	-0.2	-1.0	2.2	4.8
화공품	8.6	14.8	11.0	12.5	12.5
철강제품	6.9	19.2	22.6	20.2	19.8
승용차	5.0	11.1	8.8	7.0	8.0

○ 우리 업체들의 해외 생산기지의 소재·부품 수출 증가

< 소재·부품 수출 동향 > (억달러, %)

	2006. 1 ~ 5	2007. 1 ~ 5	수출증가 기여율
총 수출	1,274 (12.9)	1,458 (14.4)	100.0
부품소재 수출	569 (17.5)	671 (17.9)	55.4

-- 그러나 이러한 수출업체들의 채산성 악화 극복 노력이 한계 상황에 도달(「최근 환율 및 금리 수준에 대한 수출업체 설문조사」, 조사기간: 7/3 ~ 7/5)

o 현 환율수준(910원대)에서 수출마진이 한계에 도달 또는 적자 누적된 수출업체가 전체 수출업체의 72.3%에 달함

< 현 환율수준에서 수출마진 확보 여부 > (% , 업체수)

	전체응답		대기업		중소기업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① 아직까지는 마진을 확보	27.6	(50)	40.9	(9)	25.8	(41)
② 한계상황 도달	50.8	(92)	45.5	(10)	51.6	(82)
③ 적자 누적	21.5	(39)	13.6	(3)	22.6	(36)
합 계	100.0	(181)	100.0	(22)	100.0	(159)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계속하는 이유는 「고정거래선이 많아 이에 따른 수출진행」(48.3%), 「고정비용이라도 회수하기 위해」(26.5%) 등으로 나타남

< 한계상황 또는 적자누적 불구하고 수출을 계속하는 이유(복수응답) > (% , 업체수)

	전체응답		대기업		중소기업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① 고정 거래선이 많아 이에 따른 수출 진행	48.3	(71)	42.9	(6)	48.9	(65)
② 고정비용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26.5	(39)	35.7	(5)	25.6	(34)
③ 향후 환율이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	15.6	(23)	14.3	(2)	15.8	(21)
④ 기타	9.5	(14)	7.1	(1)	9.8	(13)
합 계	100.0	(147)	100.0	(14)	100.0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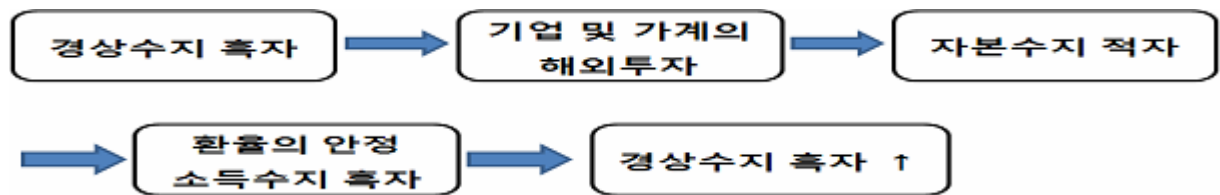
II. 환율안정화 방안

1. 배경

-- 우리나라는 경상, 자본 양수지의 흑자가 소득수지 적자 및 환율하락을 유발하여 자본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경상수지 흑자를 위협하는 악순환 구조

o 반면,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외화를 기업 및 가계부문의 활발한 해외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여 엔화의 안정 및 소득수지, 경상수지 흑자가 더욱 확대되는 ;@국제수지의 선순환 구조;~를 보유

- 이로 인해 일본의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으며 경상수지와 소득수지는 확대 추세



-- 따라서 장기적인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구조를 일본형 ;@선순환구조;~로의 전환이 시급

o 이를 위해서는 상품수지 흑자를 유지,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해외 직간접 투자를 통해 장래의 소득수지 흑자로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

- 환율불안 및 자본수지 흑자의 주요 요인인 단기외채 유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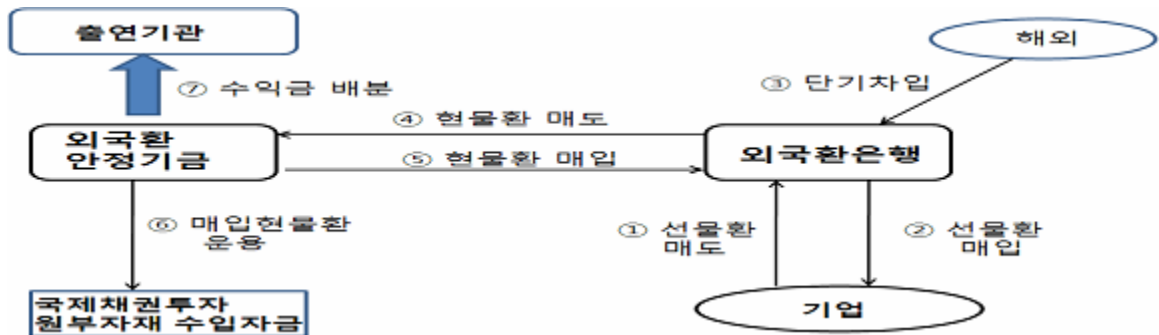
2. 주요 건의내용

-- 단기외채 유입 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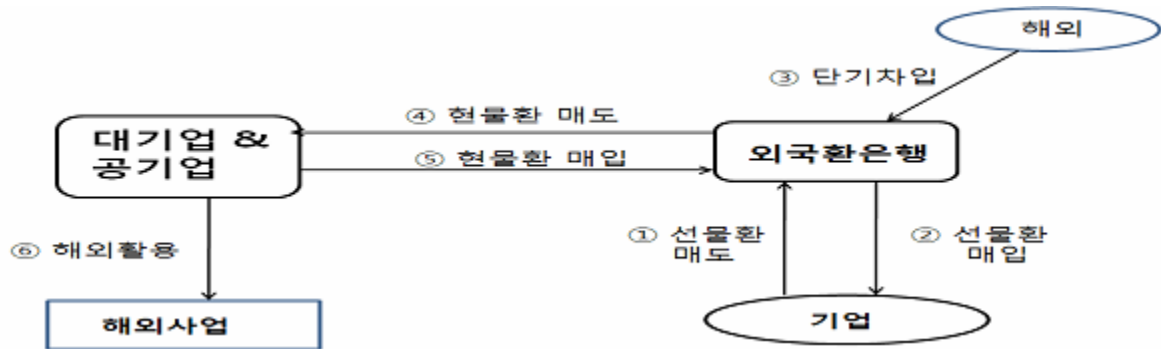
o 단기외채에 의한 시장교란 방지 방안

- (A안) 외평기금을 사용하여 은행이 도입한 단기외채를 사전매입

- (B안) 외국환안정기금* 조성 및 단기외채 매입 및 운용
 . 정부, 은행, 대기업, 연기금 등의 공동출연



- (C안) 외화가 필요한 공기업 및 대기업의 단기외채 매입



— 일정기간(ex:5년) 이상 외화예금 보유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 부유층 부동산자금의 외환수요화 효과

o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완전 허용(현재는 300만달러 한도)

· 특히,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장기간의 임대(lease)권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 없는 경우라도 일정기간(ex : 30년 이상) 이상의 lease로 실질적으로 소유에 준하는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으로 인정하여 허용하는 조치가 필요함

— Tied Loan 방식의 공적대외원조(ODA, EDCF)의 확대, 해외서비스 기업에 대한 M&A 추진

-- 상품수지 흑자 유지 및 확대

o 관세인하 등을 통한 수출업체의 채산성을 개선

o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신규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금융지원 실시

o FTA 품목별 양허세율 등 한미 FTA관련 정보 제공 및 발생가능한 산업별 일시적 피해에 대한 무역구제제도 강화

-- 소득수지의 개선

o 2010년까지 해외투자를 GDP의 10%선까지 확대

현재의 환율수준은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상태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노력을 건의하며, 특히 원/엔환율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건의함

【 국제수지 구조전환 대책 종합 】

현 상황	전환 방향	일본 상황	대 책
경상 수지			
상품수지 흑자	상품수지 흑자확대	상품수지 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인상 자제 등 수출채산성 개선 -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한미FTA 체결관련 수출기업 지원
서비스수지적 자	서비스 적자 축소	서비스 적자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관광비용의 국내 환입 - 해외교육 수요 국내흡수 - 의료+관광, 의료+휴양 등 복합프로그램 개발
소득수지 적자	소득수지 흑자전환	소득수지 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까지 해외투자를 GDP의 10%까지 확대
자본 수지			
직접투자 수지 적자	직접투자수 지 적자 확대	직접투자수지 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ed Loan 방식의 대외원조 증액 - 해외서비스 기업에 대한 M&A
포트폴리오 투자 수지 적자	포트폴리오 투자수지 적자 확대	포트폴리오 투자 수지 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M&A 활성화 -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완전 허용 - 대외채권회수의무 면제범위 확대 - 역외펀드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 근로자 적립식 해외투자펀드 판매 -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대한 비과세 - 외화예금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기타 투자 수지 흑자	기타투자 수지 적자 전환	기타 투자 수지 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외채의 외환시장교란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평기금을 이용한 은행 단기외채 매입, 외환시장 안정기금 조성, 제3의 기관을 통한 단기외채 매입 등 - 단기외채의 유입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소자본세계 강화, 외채와 외화건전성 감독 강화, 다중통화결제 방식 수출추진, 기업@ Netting 촉진

Ⅲ. 금리인상 논의에 대한 입장

1. 금리인상 주장의 근거

-- 최근 경기 회복과 과잉유동성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음.

○ 경기선행지수 개선 움직임

— 경기선행지수(전년동월비, %): 4.9(07.2월)→4.8(3월)→5.1(4월)→5.1(5월)

○ 금융기관 대출증가, 주가급등에 따른 과잉유동성 우려

— 주가지수(말기준): 1,452.6(07.3월)→1,542.28(4월)→1,700.9(5월)
→1743.6(6월)→1815.8(7/5일)

— 2007년 4월 M2와 LF(금융기관 유동성) 잔액: 각 1,161조원, 1,564조원

○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 미국: 5.25%(06.7월부터 동결), 일본: 0.25%→0.5%(2월), 유로: 3.75%→4.0%(6월)

2. 신중한 금리운용의 필요성 검토

-- 미약한 경기회복과 안정적인 물가상승률

○ 생산경기 미흡

— 산업생산 증가율(전년동기비, %): 6.2(05년)→10.5(06년)→3.4(07.1/4분기)

○ 물가상승률도 비교적 안정적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비, %): 2.75(05년)→2.20(06년)→2.50(07.6월)

--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 및 경쟁력 약화

○ 국내 수출기업의 채산성은 04년 4/4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악화

- 상장수출기업의 39.4% 잠재부실 상태(영업이익<이자비용)

* 상장수출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8.23(04년)→5.62(05년)→4.90(06년)

o 실질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상은 수출경쟁력 훼손 가중

- 국내 실질금리(2.83%), 일본 보다 약 100bp 가량 높은 수준

- 추가 금리인상시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85.6% 차지(「국제무역연구원 조사」, 7/5일)

< 주요국 금리 > (%)

	정책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한국	4.5	5.33	2.5(6월)	2.83
미국	5.25	5.04	2.7(5월)	2.34
일본	0.5	1.88	0.0(5월)	1.88

주: 1. 괄호는 최근 통계조사 월을 의미

2. 시장금리는 정부채 10년물(한국: 국고채 3년물), 7월 3일 기준

-- 원화환율의 추가 하락과 해외 단기차입 확대

o 원화는 2002년 이후 약 29.8% 하락(2007/7/5일 기준)

- 동기간 위안화 8.2% 하락, 엔화 6.6% 하락, 싱가포르달러 17.7% 하락

o 금융권 단기차입 확대

- 은행권 단기외채(말잔, 억달러): 513(05년)→961(06년)→1,110(07. 1/4분기)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심화

o 중소기업의 운영 및 투자 위축이 불가피

- 추가 금리인상시 ;@설비투자 관련 기존 계획을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0.3% 차지(「국제무역연구원 조사」, 7/5일)

-- 주가하락 등에 따른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심리 위축과 소비회복 지연

-- 과잉 유동성에 대해서는 금리인상 보다 외화단기차입 규제 등 별도의 대책으로 대응

경기 회복 수준과 중소기업의 경영상태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금리 인상에 신중해 줄 것을 건의함